뉴스홈 | 최신기사

<올림픽>이용대-이효정 "런던에서도 같이 뛰고 싶다"

송고시간 | 2008-08-18 12:37

日本語









(베이징=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2008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환상 호흡을 보이며 금메달은 딴 이용대 (20)와 이효정(27.이상 삼성전기)이 4년 뒤에도 한 조를 이뤄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용대는 18일 베이징 시내 코리아하우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2년 런던올림픽에도 출전할 계획이 있느냐란 질문에 "효정이 누나가 가면 나도 런던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이용대는 이어 "국내에는 뛰어난 선수도 많아 앞으로도 혼합복식에서 한국의 강세가 이어질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 다.



이용대와 함께 찰떡 호흡을 자랑한 7살 연상인 이효정 역시 똑같은 질문에 "내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라고 말문을 연 뒤 "용대가 받아주면 계속하겠다. 런던올림픽까지 몸이 된다면 용대와 함께 가고 싶다"고 환하게 웃었다.

이용대는 또 하루 전날 열린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인도네시아 조를 꺾고 우승한 비결로 철저한 준비와 팀워크를 꼽기도 했다.

이용대는 "인도네시아가 랭킹 1위여서 긴장을 하고 경기에 들어 갔다. 하지만 이전에 두 번 맞붙어 다 이긴 적이 있어 상승세를 타 고 있었고 자신감이 붙었다"면서 "비디오 분석 통해 상대를 완벽 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 했다.

이어 "이효정의 매치플레이도 완벽해 내가 후위 공격에서 쉽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면서 "그걸 중점적으로 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말했다.

이효정도 "여자복식에서는 공격 위주로 했는데 혼합복식에서는 이용대가 뒤쪽에서 처리를 잘 해줘 앞에서 경기하기가 편했다"면서 둘의 조화가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고 했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봄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김중수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은 "국민이 배드민턴에 거는 기대가 커 거기에 보답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많았는데 이 렇게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따 너무 기쁘다"고 칭찬했다.

gogo213@yna.co.kr



- <올림픽> 이용대 "런던에선 남자복식 금도 따겠다"
- <`금메달 윙크' 이용대 미니홈피 다운>
- <올림픽> 中 짝퉁시장 30년來 최대 호황
- <올림픽> 배드민턴 금 타고 '이용대 신드롬' 확산
- <올림픽> 성별감정실험실 첫 개설...양칫물로 감정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8/18 12:37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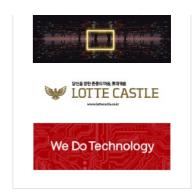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된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36 찰에 고발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0 대병원 자원봉사

3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뭐하고 놀까?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왈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앱
 모바일앱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ی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메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Yonhapne